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 3 | 제158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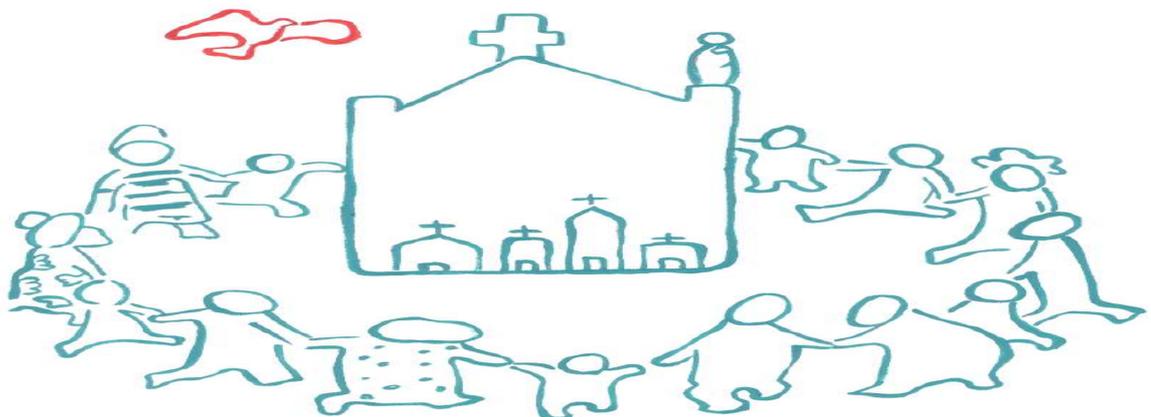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사순 제2주일(3월 13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루카 9,28 L -36)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번 "다불산의 예수"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 주님, 저희를 참 진리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루카 9,29)

주님께서 산에서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이며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이는 부활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때 흰옷을 입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루카 9,35)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프랑수아 바리용 신부는 그의 저서에서 덴마크 태생의 이외르겐센이라는 사람이 쓴 "밀알의 우화" 라는 작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밀알은 창고 안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였다. 낙수 흙통도 없고, 습기도 없었으며, 함께 있는 한 무더기의 작은 친구들도 아주 착해서 다툼도 없었고, 그야말로 완벽하였다. ... 창고 속 밀알의 작은 행복이라고나 할까, ... 그는 하느님에게 감사한다. "주님, 당신이 제게 주신 것, 저를 제 창고 속에서 이토록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사람들이 밀알 더미를 수레에 싣고 들로 나간다.... 사람들이 막 갈아 놓은 땅에 도착한다. 그러고는 밀알 더미를 땅에 묻는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습기가 그의 속까지 파고든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다. "만일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하느님, 즉 그로 하여금 밀알의 상태에서 이삭의 상태로 변화하도록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프랑수아 바리용, 심민화 옮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성서, p64-67)

씨앗은 자기 안에 처음부터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씨앗의 죽음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은 죽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런 모습은 인간을 위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속에서 썩어 죽음으로써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영원한 생명인 영광스러운 부활도 죽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즉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에서 죽고 타인을 사랑하는 새로운 자아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무는 삶입니다. 사순시기, 이기적인 자아에서 죽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연습을 더욱 많이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번 "다볼산의 예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사순 제3주일 (3월 20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1-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당신과 하나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루카 13,9)

일상의 삶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는, 교육자, 철학자로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였고 제3대 미대통령을 지냈던 '토머스 제퍼슨' 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의 외곽 벽이 심하게 부식되기 시작하자,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이 돌을 필요 이상으로 청소하기 때문이라는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덜 자극적인 화학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념관 관장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퍼슨 기념관을 그렇게 청소해야 하는가?' 이유는 늘상 비둘기들이 떼 지어 몰려와 똥을 싸놓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장은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들은 왜 우리 건물에 몰려오는 걸까?' 알고보니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장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미가 많은 것인가?' 이유는 나방 때문이었습니다. 나방이 많이 날아들어 나방을 먹고 사는 거미가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관장은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나방이 생기는 것일까' 알고 보니 해질녘 켜 놓은 기념관 불빛이 나방을 끌어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 끝에, 근본 문제가 기념관의 불빛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기념관 측은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제퍼슨 기념관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나방이 모이는 시간대에 불을 켜지 않으니 나방이 날아들지 않았고, 자연히 거미도 없어지면서 비둘기 역시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념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켜는 것이 기념과 벽의 부식을 막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박종하, 『틀을 깨라』 참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미래사목연구소 p66-67 재인용)

은혜로운 회개의 때인 사순시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위 이야기의 관장처럼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코로나시대의 신앙의 은총

사파동성당 구역분과장 김미진 카타리나

2019년 말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비대면으로 인한 고립감으로 우리 모두 답답함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립감이 신앙생활의 해이와 관계 속의 단절을 가져왔고, 미사가 없는 신앙공동체는 점점 삶의 근원을 잃어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 거리두기 미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매월 지역부 월례회를 통해 소공동체모임 길잡이와 후보 등 공지사항을 구역장과 반장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관계 맺음과 소식 전달에는 SNS(카카오톡, 밴드)가 한몫을 하였고, SNS에 올라오는 본당 소식과 강론을 통해 함께 연대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맥을 부여잡고 위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매일 미사를 위해 좀 더 일찍 성당에 나와 발열 체크와 미사 전·후 소독 및 방역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신 구역장님들, 반장님들과 소공동체모임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파동성당 19개 구역 신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꾸준히 미사를 드리며 아무 탈 없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지는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신자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미사를 드리는 것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년의 시간들 속에서 구역분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병자영성체와 장례미사였습니다.

'코로나19' 로 병원들이 자체 방역을 강화하여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연도와 장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에 그동안 함께한 정과 위로를 전하지 못함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지난 2년의 시간들 속에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봉성체를 원하는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찬미하는 모습들을 보았으며, 봉성체를 통해 저 또한 하느님을 찬미하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함께 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가득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어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역할배분 ②

◆ 서기의 역할

- ① 선정된 서기는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 를 준비하고 모임 진행 사항을 기록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 기록지' 를 모임 전에 미리 챙기고 지난 모임 때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합니다.
- ③ 모임 전 반장과 진행자에게 지난 모임에 작성한 회의록을 1부씩 복사해 주어 미리 읽어 보도록 합니다. 다른 구성원들도 열람을 원할 경우 숫자만큼 복사해 나누어 줍니다.
- ④ 모임 당시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합니다.
- ⑤ 나눔을 기록할 때는 가능한 무기명으로 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적인 나눔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기록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모임이 끝나면 회의록을 반장에게 제출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⑦ 회의록이 소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타인(타 모임 신자 혹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과)에 의해 아무렇게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복음나누기 진행자의 역할

- ①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를 모임 전에 충분히 숙지합니다.
- ② 소공동체 모임의 진행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 ③ 모임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멘트를 읽어가며 진행합니다.
- ④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도, 성경낭독, 묵상나누기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⑤ 특히, 6단계에서 지난 주 활동 나눔 및 활동 계획 수립, 그리고 신앙상식 공부 시, 각 담당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봉사 활동 담당자의 활동 나눔 안내 등)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